

故 김범수 중위 가족에게 보내는 위로 서신

고(故) 김범수 중위의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하의 생명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인의 비보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고인은 평소에도 부하와 상관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은 참다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순직이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믿음직한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보낸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슬픔을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인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났지만, 살신성인의 삶은 언제나 우리 군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거듭 부하와 동료들의 생명을 대신한 고인을 추모하며,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